“여래장은 법계장이며 법신장”

〈法界藏〉 〈法身藏〉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⑪ 여래장과 번뇌

〈원문〉 “세존이시여, 여래장은 시작된 시간(前際)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체 고통이 여래장에 의해서 심어지며,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하는 것도 여래장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장은 ‘나’라는 게 아니고 중생이 아니며, 목숨이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여래장이란 몸이 있다는 소견에 떨어진 중생이나 뒤바뀐 생각을 하는 중생, 공한 데 뜻이 어지러워진 중생들의 경계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장은 곧 법계장(法界藏)이며, 법신장(法身藏)이며, 출세간상상장(出世間上上藏)이며, 자성청정장(自性淸淨藏)입니다. 이 성품이 깨끗한 여래장이 객진번뇌(客塵煩惱)와 상번뇌(上煩惱)에 물드는 것은 불가사의한 여래의 경계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찰나의 선한 마음은 번뇌에 물든 것이 아니며, 찰나의 나쁜 마음도 번뇌에 물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마음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마음도 번뇌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접촉하지 아니하는 법으로 어떻게 마음을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나 번뇌도 있고 번뇌가 마음을 물들이는 일도 있사오니, 성품이 깨끗한 마음으로서 물든다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불세존만이 진실한 눈과 진실한 지혜로서 법의 근본이 되시며 법을 통달하시어 바른 법의 의지할 데가 되었으므로 실제와 같이 아시고 보십니다.”

〈강설〉 여래장사상의 대표적인 전거(典據)가 되는 〈승만경〉은 여래장에 대한 설명을 매우 심도 있게 전개해 나간다. 여래장이란 결국 불생불멸하는 불성 자체를 달리 표현하는 말이다. 이 장에서는 여래장이 법계장, 법신장, 출세간상상장, 자성청정장이라 하였다. 이 여래장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미래 어느 때에 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면서도 이것에 의해 온갖 고통이 심어지며 열반을 구하기도 한다 하여 부처의 세계나 중생의 세계가 모두 여래장의 세계임을 밝힌다. 그러나 여래장 자체는 모든 것을 떠난 것으로 중생의 경계도 부처의 경계도 아니라고 했다.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올리는 말씀 가운데 부사의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부처님의 경계는 중생이 식심으로 분별하는 사유의 차원이 아니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원각경〉에 사유심으로써 여래의 원각 경계를 헤아리는 것은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 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여래장의 장(藏)은 만유 제법을 모두 저장하는 창고라는 뜻과 모든 것을 출생시킨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화엄경〉에는 나오는 무진장(無盡藏)이라는 말처럼 법계장, 법신장, 출세간상상장, 자성청정장이란 말도 무진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다.

다시 말해 〈승만경〉에서 말하는 여래장이 〈화엄경〉의 무진장이다. 〈불명경(佛名經)〉에는 ‘나무무진장불(南無無盡藏佛)’이라 하여 부처님을 무진장이라 하였다. 또 무진장보살이라는 보살의 명호도 있다.

그러나 이 무진장인 여래장이 본래는 어떤 현상의 영역에 소속되거나 국한되지 않는다 하였다. 여래장이 ‘나’가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목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말이 미묘하다. 법성게(法性偈)의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가 끊어졌다(無名無相絶一切)”는 말과 똑같은 뜻이다. 만유의 현상은 상대적인 연기의 세계이지만 부처님의 정각의 경계는 모든 상대적인 현상을 초월한 절대의 세계다. 여기에는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무분별의 세계라서 그야말로 선(禪)에서 말하는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곳이 없는(節言語路 滅心行處)” 세계이다. ‘부처를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말은 〈금강경〉의 즉비(卽非) 논리에 의해 자주 해온 말이다.

여래장이 객진번뇌(客塵煩惱)와 상번뇌(上煩惱)에 물이 든다는 것은 번뇌가 없던 여래장에 홀연히 생기게 되었다는 말이다. 바다에 본래 파도가 없었는데 파도가 생긴 것처럼 번뇌도 그와 같이 생긴다는 것이다. 객진이라 하는 것은 본래 없었으므로 우연적이고 외래적인 것으로 생겼기 때문에 찾아온 손님에 비유해 하는 말이고, 상번뇌(上煩惱) 수번뇌(隨煩惱)를 말하는 것으로 근본번뇌에 따라서 일어나는 번뇌를 말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諸行無常’ 깨칠 때 행복 얻어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⑭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한 수행

행복 원하면 자신 마음 변화시켜야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신들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과 행복의 감정들은 모두가 자신의 내면적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처님께 의지하며 스스로 마음을 닦아 변화시켰을 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전 증지부 ‘일법부’에서 “우리의 마음은 빛나고 찬란한 것이다. 단지 바깥에서 들어온 때에 의해 더러워질 뿐이다.”라고 우리들의 마음 본질이 본래 청정함을 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끝없이 변한다

불자 여러분! 모든 존재는 끝없이 변해갑니다. 그것이 물질인 것이나 비물질인 것이나, 유형적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간에 변화를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모두가 다 변합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인연을 따라 한 순간도 멈춤 없이 매순간 변화해갑니다.

물질적인 것은 성주괴공(成住壞空)을 하고, 마음은 생주이멸(生住異滅)을 하며 우리들의 육체는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하면서 변화합니다. 우리들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가 모두 다 변한다는 진리를 확실히 믿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 역시도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있을 때만이 큰 괴로움이 닥쳐와도 그 괴로움은 때가 되면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를 깨치고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체 존재는 모두가 실체(實體)가 없는 무자성(無自性) 공성(空性)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는 공성이기 때문에 인연생기(因緣生起), 즉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고 인연이 다하면 소멸(消滅)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의 진리를 깨치시고 〈잡아함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함으로써 저것이 생한다.(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此無故彼無)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此滅故彼滅)”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는 일체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지며 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연기의 진리를 제대로 깨치지 못하면 그릇된 사견(邪見)에 빠져서 허상에 집착하며 분별망상을 일삼고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설하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며, 모든 존재는 모두가 공성이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든 존재는 이처럼 무자성 공성이므로 실체가 없어 인연생기(因緣生起)하므로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든 정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느 것에도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 보고 일체고액을 건넜다”라고 설한 것처럼 관세음보살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⑪ 고씽까 법문의 작은 경 2

‘나’ 없음 아는 것이 ‘出家’

난디와 낌빌라는 “존자 아누룻다께서 세존의 앞에서 우리들에 관하여 모든 번뇌가 소멸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우리들이 존자 아누룻다께 이러 저러한 경지를 성취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누룻다는 “존자들은 저에게 ‘우리 둘은 이러 저러한 경지를 성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대들의 마음에 관해 ‘이들 존자들은 이러 저러한 경지를 성취했다’라고 압니다.

“출가(出家)를 한다”고 말하지만 출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출가라는 첫 출발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집 있는 곳에서 집 없는 곳으로”, 이 문장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단계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지만 바르게 떠나게 되면, 차차 출가의 의미가 넓고 크다는 것이 새삼스레 다가온다.

처음에는 몸의 떠남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은 밖에 인연의 떠남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의 떠남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이 생길 수 없음을 알고, 나의 존재의 떠남을 받아들이고, 나의 존재가 생길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처음은 몸을 떠나는 나의 주체가 있는 떠남이었다면 나중은 몸은 그대로 두고 몸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임을 알아 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나의 집이 아님을 안다. 그러므로 다시 어디를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끊어 버리는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똑같은 출가의 길을 가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길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출가의 길은 지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존경 받는 것도 아니다. 오온을 나로 알고 있는 마음을 거두어 더 이상 무엇으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모든 인연을 놓아 그들을 해탈시키는 것이 마지막 출가이다.

밭에 콩을 심었는지 팥을 심었는지는 작물을 거두어들일 때가 되면 누구나 알게 된다. 아누룻다는 도반들이 수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도반의 말과 행동이 세속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고, 불필요한 말과 행위를 버리고, 가르침에 대한 사유를 영양분으로 삼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견해를 버리고, 처음으로 듣는 지혜에 두려움 없이 마음의 빗장을 열고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까이 있음으로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이다. 그래서 아누룻다는 벗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없음을 마음으로 알고 부처님께 도반들의 성취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 드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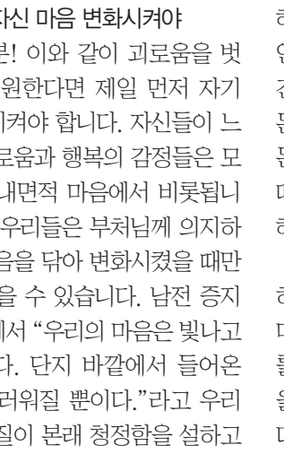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앎을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들은 나의 몸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가장 잘 알고 있다. 허물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성인군자 같은 소리를 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겠는가. 아마 마음속으로 “너나 잘 하세요”라고 말할 것이다. 가르침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이 필요한데 조금 이해했다고 말이 법인 줄 알면 입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 언어는 가장 나중에 나오는 방편이다. 진리가 어찌 언어에 있을 수 있겠는가? 서로 언어와 모양에 있지 않음을 알 때 소통은 이름 할 필요가 없다. 아누룻다는 도반 난디, 깜빌라와 언어와 모양을 떠나 소통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주는 것은 스승보다 도반이 먼저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에
그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 아닌 그것이기에
아루눗다, 부처님께 그것이라 이름 붙였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닝마파 전통의 핵심 논서!
티베트불교의 현교와 밀교의 요점을 총합한 법장!



정해 보등론 강의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미팡 린포체가 닝마파 대원만 기도과 전 과정의 일체 교의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번역 소개되었다.

전지 미팡 린포체 조송/진메이펑춰 린포체 전수
수다지 켄포 역강/지엄 화상 한역/512쪽/값 28,000원

스님의 그림자

상담하는 비구니 스님의 자기 치유 이야기!



한국 승려 최초로 권위 있는 상담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출가수행자라는, 상담전문가라는 권위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감추고 싶었을 자신의 내면까지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은 심리치유의 경험담이자 탐험기이다.

효록 지음/국판/264쪽/값 15,000원

중국불교의 교과서이자 필독서!
승조의 『조론』과 감산덕청의 『조론 약주』 완역!

조론 역주



진정한 중국불교의 문을 연 위대한 승려 승조의 『조론』과 명나라 고승 감산의 주해, 이 두 저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로 그 정수를 드러내보인다.

승조 지음/감산 약주/덕우 강승욱 역주/760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